

## 노인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연구

김희정\*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적 환경을 알아보고 한국의 노인생활 실태와 노인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참고하였고 2014년 6월 일부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죽음불안을 설문조사하여 통계분석하였다.

결과 : 첫째, 저학력이 많고 부부가구가 가장 많으며 연간소득은 경제인구의 평균수준이었다. 둘째, 매년 의료비는 노인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다. 셋째, 노인의 우울 요인은 미래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으로 인한 우울감이 가장 높았다. 넷째, 노인의 죽음 불안 수준은 자신의 죽음 불안과 자신의 죽음과 정의 불안이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죽음 불안 수준도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 : 작업치료 등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입증된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여 노인들의 여명수명의 삶의 질 향상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도모가 필요하다.

주제어 : 노인, 우울증, 죽음

### 1. 서론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20세기 중반 이후 인류의 평균수명이 유례없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대 문화권에서는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1세기 중반까지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Kwon, 1998).

우리나라의 인구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며,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7%로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7%이상)에 진입하

였으며, 향후 2018년에는 고령 사회(14% 이상)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세계 평균수명이 66.57세인데 비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9.05세로 세계 28순위이다(Kim, & Kim, 2012). 우리나라는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와 인구고령화가 압축적으로 함께 발생함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경험하지 못한 폭과 속도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수반되는 제반 문제는 한 가정이나 지역 사회의 영역을 넘어 이제는 국가적, 국제적 관심으로

대두되었으며, 그 심각성으로 인해 최근 노인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Choi, & Ha, 2012; Lee, & Moon, 2011) 노인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문제인 우울은 65세 이상의 20%가 경험한다(Lim, & Kim, 2012).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우울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자살로 이어진다고 한다(Lim et al., 2012). 일반적으로 노인의 우울수준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70대 노인들이 60대 노인들보다 우울수준이 더 높다. 이러한 점은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신체기능,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사회관계망 또한 쇠퇴하면서 이로 인해 정신건강이 약화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Ko, & Lee, 2012; Lee, & Ko, 2009).

일반 성인에 비해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여명수명 동안 삶의 질의 지표가 된다. 노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이 안녕(well-being)한 상태로 개인이 경험하는 생활 전반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복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즉, 삶의 제반 영역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삶의 만족감을 누리며 생활하는 것을 노인의 삶의 질이라 한다(Choi et al., 2012; Kim, 2008).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생활수준, 자녀와의 친밀감, 자녀의 효의식, 사회참여, 지역사회환경 등으로 나타났다(Bae, & Park, 2009; Choi et al., 2012). 또한, 노인의 여가활동과 봉사활동은 가족, 이웃, 친구들과의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 및 사회참여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작업치료 실행체계에서는 여가를 하나의 작업영역으로 규정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노인의 균형있는 삶을 위해 여가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Choi et al., 2012) 노인의 심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독, 우울, 소외감들을 떨쳐내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Choi et al., 2012). 노인은 가까이 다가온 죽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긍정적 죽음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노화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힘겨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Park, & Hu, 2012).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적, 정신적 환경을 알아보고 한국의 노인생활 실태와 노인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자료처리

연구에 필요한 노인 자료는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확보하였고, 정부의 노인서비스 제도의 필요성 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중요성과 필요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2014년 6월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일부지역 사회복지기관에 내원하는 150명의 노인을 남, 여 구분없이 대상으로 전문요원인 사회복지사가 설문을 실시하였고 우울증과 죽음불안에 관한 정신적 환경 내용을 설문조사하였다. 우울증은 한국형 우울증 검사(Korean Depression Scale; KDS)를 이용하였다. 우울증검사의 세부항목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 걱정과 초조, 우울한 기분, 신체화 증상, 의욕상실로 구성되어 있다. 죽음불안의 검사는 자신의 죽음불안, 타인의 죽음불안, 자신의 죽음과정의 불안, 타인의 죽음과정의 불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척도를 이용하였다.

### 2. 자료분석

원자료의 내용은 기술통계를 통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수합된 설문지는 결측지와 이중표기를 포함한 표기에 문제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20부를 Spss win 17.0K를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노인의 우울증은 세부항목별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노인의 죽음 불안 수준 검사는 4점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시행하였다.

Table 1. A general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tems	M±SD	items	M±SD	
monthly mean medical costs (a thousand won)	110.9±191.0	an annual income (a million won)	22.1±30.08	
a spouse	0.758±0.429	single	0.106±0.307	
sex(female)	0.592±0.491	a couple	0.318±0.466	
graduated from elementary school	0.347±0.476	family member	a couple and children	0.272±0.445
scholar- ship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disease : have	0.460±0.498	
	graduated from high school	retired	0.264±0.441	
	graduated from university	death within 4 years (aging + disease)	0.069±0.254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deteriorational security's panel of people 2005.

Table 2. Total medical costs and medical costs per case of health insurance in elderly

items	total medical costs(a thousand won)	medical costs per case(won)
2005	1,242,688,287	60,451
2006	1,492,654,106	64,923
2007	1,581,012,871	58,238
2008	1,671,934,237	50,838
2009	1,743,206,500	52,850

ministry of health, a statistical yearbook of health insurance 2010

### III. 연구 결과

#### 1. 노인인구의 사회현상학적 특성

일반적인 노인의 사회현상학적인 특성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5%이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35%로 가장 많아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소득 수준은 2천 2백만원으로 우리나라 평균가구 수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까지는 세대구성에서는 부부가구와 자녀동거 부부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Table 1).

#### 2. 노인인구의 진료비 변화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전체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당 진료비는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노인인구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Table 2).

Table 3. Depression of the elderly

n=120

items	M	SD	F	P
negative thinking of the future	83.50	5.16	40.32	.000*
negative thinking of themselves	70.16	4.23		
anxiety and impatient	65.24	6.36		
feeling depress	67.81	4.27		
somatization	69.35	5.45		
demotivation	68.30	4.05		

\*p<.05

Table 4. The death anxiety level of the elderly

n=120

items	M±SD
the death anxiety of oneself	2.72±0.35
the death anxiety of others	2.10±0.51
the death process of anxiety of oneself	2.69±0.25
the death process of anxiety of others	1.89±0.16
the death anxiety of total	2.35±0.32

### 3. 노인의 우울증

노인의 우울증을 확인한 결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다른 요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 4. 노인의 죽음 불안 수준

노인의 죽음 불안 수준을 확인한 결과, 자신의 죽음 불안(2.72)과 자신의 죽음과정의 불안(2.69)이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죽음 불안 수준(2.35)도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Table 4).

## IV. 고 찰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위치를 결정짓는 주된 요인으로 노인우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우울증상이 적게 나타나고,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더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상이 나타난다(Lee, Kang, & Lee, 2008).

노인에게 있어 배우자는 정서적 지지의 근원이 되거나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혼 상태는 노년기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인은 배우자를 통해 존재감과 안정감을 얻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 일관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8; Ko et al., 2012). 노인의 신체적 질병 또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질병이 있는 노인은 없는 노인에 비해 우울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질병이 노인의 사회적 참여에 제약을 초래하여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Ko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노인의 우울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처해있는 삶과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가올 불투명한 미래의 여명수명 동안의 삶에 대한 걱정이 또 다른 정신적 현상인 우울을 야기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의 지속적인 운동의 참여는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Jang, 2000; Ko et al., 2012). 노인의 신체 활동이 노인의 근력, 심폐기능, 유연성 등의 신체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 삶의 질, 자아존중감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Chung et al., 2006; Ko et al., 2012). 본 연구에서도 일반 노인들의 신체화 증상으로 인한 우울은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의 사회활동이 활발할수록 노인의 대인관계,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서비스,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 모두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준다(Hong, Jeong, Cho, & Kim, 2012). 우리나라의 65세부터 74세까지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81.8명으로 OECD국가들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Ha, Song, & Nam, 2012). 노인들은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평균 횟수가 2-4번 정도로 높게 나타나며, 훨씬 더 치명적인 자살 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Ha et al., 2012). 가족의 노인에 대한 책임의식은 약화되고 있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화에 따라 노인자살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Lim et al., 2012).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충동 및 원인은 질환 장애(40.8%), 경제적 어려움(29.3%), 외로움 및 고독(14.2%), 가정 불화(10.4%)의 순으로 나타났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Ha 등(2012)은 노인들이 이혼, 결혼한 적 없거나, 별거인 경우, 그리고 자녀와 동거, 배우자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이 없는 경우와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

는 경제적 만족감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은 높게 나타났다. 노인자살과 경제적 상태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살생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인들은 죽음 그 자체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노인들의 자살 불안 수준을 확인한 결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죽음과정의 불안을 보통이상으로 나타냈다. 힘든 삶에 대하여 자살 충동을 느끼지만 한편으론 죽음에 대한 불안도 동시에 느끼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 또한 노인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Kwon, 1998).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으로 나눌 수 있다.

노년기 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정신건강의 측면은 그 중요성이 커져간다. 정신건강은 생물학적이거나 유전적 요인의 설명력이 5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울감은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쉽고 경미한 수준의 우울이라 하더라도 당장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그 심각성이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에서 정신적 차원의 건강을 측정할 때 우울감을 중요한 변수로 활용한다. 특히 노년기에는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상실을 경험함에 따라 정서적 불안감, 삶의 의미하락, 존재가치 저하라는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의 정신적인 건강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Kim et al., 2012).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노인 개인의 심리내적인 면과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체계인 가족이나 사회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그에 따른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상담이 요구된다(Lim, 2012; Son, 2005).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크게 건강약화, 수입 감소, 역할상실, 소외 및 고독, 부양 및 보호문제, 여가활동문제, 노인의 성문제, 그리고 노년기 과제인 죽음과 죽음불안 문제 등으로 볼 수 있고 노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울, 자살사고가 동반된다(Lim et al.,

2012). 노인에게 있어 죽음의 개념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인이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현재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력 있게 보내고자하는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은 죽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며 현재 삶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게 된다(Park et al., 2012).

노년기의 삶에 적응하고 보다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며, 사회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Park, 2009; Park et al., 2012). 이러한 점에서 노인의 여가활동과 스포츠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노인에게 여가활동은 고독감, 소외감, 무료함을 극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지속적인 여가활동은 노년기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Park et al., 2012). 여가활동의 하나로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죽음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3; Park et al., 2012). 작업수행영역의 한 요소인 여가활동에서 노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활만족도를 높혀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AOTA., 2008). 그러므로 노인 여가는 정책적, 사회적 해결 방안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은 여가활동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노인이 경험하게 되는 건강, 고독감, 소외감, 스트레스 등의 노인문제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참여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는 건강한 여가선용뿐만 아니라 건강유지와 행복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Kim et al., 2012).

노인의 스포츠활동은 노인들의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유익하고,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문화적 변화, 생활만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이다(Kim et al., 2012; Yeo, 2009).

노인의 여가와 스포츠활동의 제한이 되는 노화에 따른 질환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28.8%에서 1990년 34.6%, 1995년 44.0%로 급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4명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 중 절반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03년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2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모성 노출이 쉬운 노인들을 위한 첨단 디지털 기기 접목 의료기 제작, 노인용품 제작 등 고령친화산업이 필요하고, 각종 질병예방, 질병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으로 신체 노화로 저하된 활동의 보조, 대체, 간병지원 등을 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장하여야 한다(Heo, 2004; Kang, 2005). 나중에 겪게 될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노인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수준 등에 미리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협동하는 시민의식의 향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현재 상태와 복지에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대책 역시 필요하다(Suk, & Kim, 2000).

우리나라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4년 62만 명에서 2010년 79만 명으로 늘어나고,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수도 2005년 26만 명에서 2006년에는 3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Kang, 2005; Ministry of health, 2010). IMF에 따르면, 노인인구 1% 증가시 GDP는 0.4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2.4% 증가하였고 또 동기간 진료비 점유율은 11.5% 증가했다(Kang, 2005). 매년 증가하는 의료비는 조만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 이에 따른 보건의료정책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노인과 앞으로 노인이 될 모든 연령층에 대한 금연, 운동, 건강한 식생활, 다양한 여가활동 등의 예방도 단순히 의료비 절감의 목적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강조되어야 하며, 건강한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들 가운데 최고령층은 질병보다 신체활동의 장애, 치매 등의 위험이 더 커짐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커지므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입원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건강보험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에 대해서도 신중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Chung, 2010). 특히, 경도인지장애노인에게 검증된 작업치료인지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인지쇠퇴를 지연시켜 치매로 인한 의료비상승을 둔화시킬 수 있다(Camila et al., 2008).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 전반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기반의 노인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Choi et al., 2012).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노화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노화를 대비하는 자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젊을 때부터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경제적 준비, 건강한 신체, 여가활동 준비를 하여야 한다.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노인들만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서도 노후생활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노인복지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준비된 노후생활이야말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Choi et al., 2012).

현재 작업치료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재설계프로그램도 그 방안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건강을 촉진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여 성공적 노화를 이루고 인생전반을 의미있는 주제로 전개시켜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용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Kim, 1996).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맞춤형 사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Kim, 1996). 또한, 노년기의 다양한 욕구와 서로 다른 가족환경 속에서 적용 가능한 노년기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Ha et al., 2012). 이러한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로 도출하여 효과를 입증하고 입증된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노인들의 여명수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08).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2(6), 625-688.
- Bae, N. R., & Park, C. S. (2009).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2), 761, 779.
- Camila, V. L. T., Lilian, T. B. G., Danilla, L. C., Florindo S., Jose, L. R. C., & Sebastiao, G. (2008).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on cognitive functions in older people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4, 175-180.
- Choi, H. S., & Ha, J. C.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3(3), 559-568.
- Chung, M. H., Kim, J. M., Jeon, H. J. (2006). Needs and Capacities to Exercise for Low-income Elderly. *J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4), 895-910.
- Chung, W. K. (2010). Aging Population and Medical Cost. *KDI*, 1-58.
- Ha, J. M., Song, Y. J., & Nam, H. U. (2012). The Effect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Failed Belongingness to Elderly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5, 65-84.
- Heo, Y. (2004). A tendency of industry development about silver medical equipment. *Information of medical equipment, summer*. 4-12.
- Hong, C. S., Jeong, C. H., Cho, M. H., & Kim, H. J. (2012). Statistical analysis of actual living condition of the elderly and welfare need survey data.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3(1), 13-24.
- Jang, S. N. (2002) The Effects of Aquatic Exercise Program on the Physical Function and Depression in Community Elderly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 *KSPHN*, 14(1), 122-130.
- Kang, K. S. (2005).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future of rehabilitation technique research in the disabled elderl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4, 73-82.
- Kim, D. B., Yoo, B. S., & Lee, J. E. (2012). Health Inequalities among the Elderly: Mediation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Between Educational Level Inequalities and Self-rated Health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3(1), 117-142.
- Kim, H. J. (2003). *A study on factors of aged life gratification affecting the attitude of korean senior citizens toward death*. Graduate school, Hallym University.
- Kim J. H., & Kim, H. I. (2012). An analysis on the Preference of Leisure Programs for Senior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48, 615-628.
- Kim, K. S. (1996). Development of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r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5, 51-70.
- Kim, M. R. (2008). Factors of Successful Aging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m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1), 33-48.
- Ko, J. E., & Lee, S. H. (2012). A Multilevel Modeling of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mong Older Korean Adult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0(1), 322-351.
- Kwon, H. L. (1998). The study of special disease and emergency occurring to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7, 141-155.
- Lee, H. J., Kang, S. K., & Lee, J. Y. (2008).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Position and Health Behavior on Geriatric Depressive Symptom.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4), 1129-1145.
- Lee, J. Y., & Moon, J. W. (2011). The Effect of

- Elderly Mental Health on the Life Satisfaction.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37(1), 45-57.
- Lee, S. H., & Ko, J. E. (2009). Factors affecting the ability of older adults to identify symptoms of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2), 529-546.
- Lim, K. S., & Kim, H. S. (2012). Effect of Life Respect Programs for the Elderly on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5, 201-222.
- Ministry of health. (2010). a statistical yearbook of health insuranc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 Park, D. M. (2009). *The effect of older adults' social engagement on attitude toward death*.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Dong Eui University.
- Park, S. A., & Hu J. S. (2012). Determinants of the Death Anxiety among the Elderly.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40(1), 59-88.
- Son, D. S. (2005). The Study on the effective factors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5(4), 205-217.
- Yeo, J. E. (2009). Experience of Recreational Values through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Activities of Elderly Women.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3(4), 57-66.



## Abstract

### A Study on the Social Environment of Elderly

Kim, Hee-Ju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ya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the factors affecting a social phenomena of the elderly and suggest a basic data for efficiency of a senior policy and type of the life in Korea.

**Methods** : We refereed to sources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 also surveyed and analysed the depression and death anxiety among the elderly in 2014.

**Results** : First, most of them were low educated people and family composing a couple. An annual income were average. Second, medical costs were increasing constantly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Third, they had high depression index resulting from negative thinking of the future and themselves. Fourth, the death anxiety level of them were more than moderate and that was about the death of themselves and the process of the death.

**Conclusion** : It is needed to help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fe in the elderly through social program established a variety of special fields like occupational therapy and family support program belonging to the government.

Key Words : Death, Depression, The elderly